

새로운 조경수(Ⅳ) 노각나무

이원열 / 임업연구원 연구관

학명 : *Stewartia koreana* Nakai

영명 : Korean Stewartia

한명 : 錦繡木

일명 : コウライシャラノキ, ナ
ツツハキ



노각나무 꽃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노각나무는 차나무과에 속하며, 나무높이 10~15m로 자라는 낙엽소교목 내지 교목으로 수직적으로는 표고 200m ~ 1,200m, 수평적으로는 전남북, 경남, 충북속리산 및 평남 일부에 자생하고 있다.

나무의 식별을 위한 분류적 특징을 보면 줄기가 매끈하고 나무껍질은 적갈색 또는 홍황색으로 껍질이 벗겨져 얼룩무늬가 있어 얼핏 보기엔 모과나무와 흡사하다. 잎은 서로 어긋나고 길이 4~10cm, 너비 2~5cm로서 타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파상의 톱니가 있으며 뒷면에 잔털이 있다. 꽃은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로 직경 7.5cm, 길이 2.5~3.5cm로 새가지에 백색으로 6~7월

에 피며 동백꽃모양과 비슷하다. 열매는 암술대와 더불어 길이 2.0~2.2cm로서 오각형의 송곳모양이 삭과로 10월에 익으며 5개로 갈라진다. 갈라진 종실(종자가 들어 있는 방)에는 3~6개의 종자가 들어있고 종자의 가장자리에는 좁은 날개가 있다.

나무의 성질은 대개 음수와 양수의 중간인 중용수이지만 약간 양성을 띠며, 적응성이지만 주로 산복부 이상에 생육하고 있으며 생육은 타수종에 비해 약간 빠른 편이다.

식재 및 이식은 지역별로 달라 남부지방은 3월 초순에서 중순경, 10월 초순에서 11월 초순경까지 지난해 뿌리돌림한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활착율이 좋고, 중부지방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적기이며 가을이식은

동해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번식은 실생, 삽목, 취목의 방법이 있으며, 실생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채취한 2년째의 초봄에 파종하여야 발아가 된다.

결실은 개체마다 다르며, 격년마다 결실량에 큰 차가 있고 결실량도 적다. 꽃이 맺히기까지는 5~8년을 필요로 하며 열매는 익으면 벌어진다. 이때 충실한 종자는 즉시 떨어지므로 열매가 벌어지기 전에 채취해 몇일간 그늘에서 말린후 알맹이를 골라낸다. 종자는 건조를 싫어하므로 탈립(脫粒) 즉시 습한 모래에서 저온저장 또는 흙속에 매장해 두면 좋다. 종자의 발아법에 관한 구체적인 국내연구가 드물어 노각나무속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1 심목묘

2 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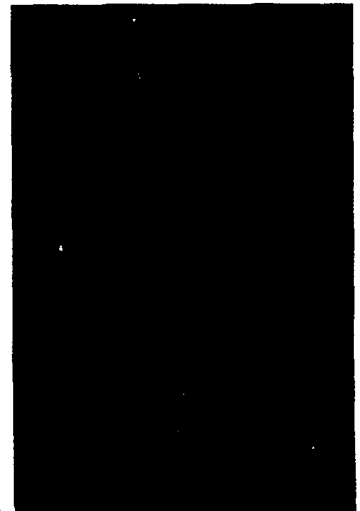
3 겨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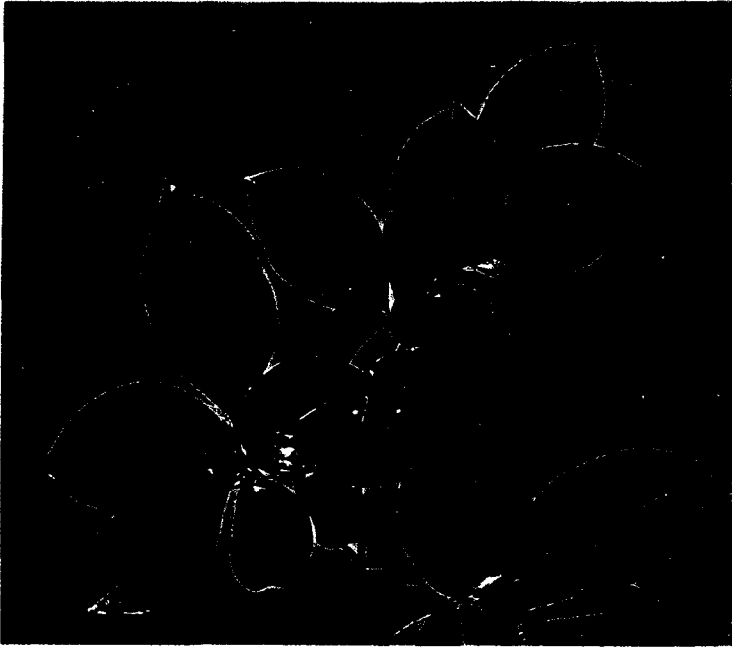
1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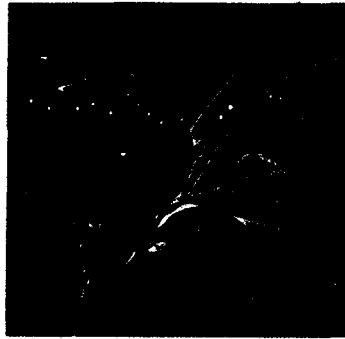


2

1. 노각나무 잎

2. 노각나무 종자

3. 노각나무 열매



3

자료를 인용하면, 종자의 보존년 한은 2~3년, 정선종자 10당 31,000립, 1kg당 65,000립정도이다. 발아의 대부분은 2년째의 봄에 이루어 지므로 1년간 저장한 종자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발아율은 대개 45%, 파종전에 1~2일간 물에 담가둔다. 상토로서는 양토 2, 土炭(또는 이끼) 1, 모래 1 의 비율로 혼합된 것을

사용하고 흙은 얇게 덮으며 관수를 충분히 한 후, 발아시까지 해가림을 해주면 좋다. 삼목은 6~7월에 반숙지를 채취하여 모래와 이끼류를 3:1로 혼합한 삼목상에 삼목하고 공중습도를 높게 유지시켜주면 발근이 된다.

전정은 필요 없으며 시비는 12~2월에 유기질 비료를 뿌려주면 된다. 병충해는 타수종에 비해 드물지만 탄저병이나 응애, 진딧물 등이 가끔씩 발생하므로 이의 방제에 주의 하여야 한다. 탄저병의 경우는 다코닌 800배, 디포라탄 800~1000배액을 살포하면 좋고, 응애나 진딧물의 경우는 가루에크론 1000배, D.D.V. P. 1000~1500배액을 잎에 뿌려주면 방제할 수 있다.

노각나무는 재질이 좋아 예로부터 노각나무로 만든 목기는 목기중에서 으뜸으로 꼽히며 조경적 가치를 보면 수피, 수간, 꽃 등 모든 점에서 우수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이므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량번식법 만 개발되면 조경 소재로서 전망이 밝은 나무이다.▲▲